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24위 복자

복자 원시장 베드로

(1732-1793)



강직한 성품으로 별명이 호랑이였던 원시장은 1732년 충청도 홍주 응정리의 양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56~57세가 되었을 때, 사촌 형인 원시보 야고보와 함께 교리를 듣고는 천주교 신앙이 '수천 년 동안 목숨을 보전해 주는 약'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이후, 친척과 친구들에게 교리를 설명해 주고 전교하였으나, 그는 이때까지도 세례를 받지 못하였다.

1791년 신해박해가 일어나 원시장은 체포되어 홍주 관아로 끌려가게 되었다. 어떠한 강요에도 굴복하지 않던 어느 날, 그를 찾아온 한 교우에게서 마침내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온갖 고문에도 배교하지 않은 탓에 결국 물을 붓고 밖에 내놓아 얼어 죽게 하라는 명이 떨어졌다. 그가 덮어쓴 물은 금세 얼음으로 변하였다. 하지만 원시장은 오로지 주님의 수난만을 생각하며 마지막 감사 기도를 드렸고,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바쳤다. 때는 1793년 1월 28일, 그의 나이는 61세였다.

성화_김형주 작,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5

사순 제2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27(26), 8, 9 참조

주님, 당신 얼굴을 찾으라 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제1독서

창세 15, 5-12, 17-18

화답송

시편 27(26), 1, 7-8, 9, 13-14 (☉ 1ㄱ)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

○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 주소서. 자비를 베푸시어 응답하소서.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신 주님, 당신을 생각하나다.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

○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시고, 분노하며 당신 종을 물리치지 마소서. 당신은 저를 돕는 분이시옵니다.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

○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

제2독서

필리 3, 17-4, 1 (또는 3, 20-4, 1)

복음 환호송

마태 4, 4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음

루카 9, 28L-36

영성체송

마태 17, 5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브라함 계약



브에즈 세바 유적지의 우물

이스라엘의 옛 성읍인 브에르 세바와 헤브론 같은 유적지를 순례하다 보면, 그곳에 정착해 살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창세기는 11장까지 전 세계적 범주에서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집중합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인 뒤 타락의 길을 걷던 인류가 홍수의 재앙을 겪을 때 노아가 등장하였듯이, 11장의 바벨탑 사건 뒤에는 하느님께서 당신에게서 떨어진 인류를 위하여 아브람을 택하시고 구원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는 대목이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시며 가나안 땅과 많은 후손을 약속하시는데, 이 계약은 이후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는 시나이산 계약의 기초가 됩니다. 그 결과, 가나안족은 영토를 빼앗기게 되지만, 이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편애하신 뜻이 아니라 가나안족의 죄가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며(창세 15,16; 신명 9,4-5 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브람과 계약 맺으시는 창세 15장의 의식이 매우 특이합니다. 아브람이 암송아지, 암염소, 숫양, 산비둘기 등을 마련한 뒤 날짐승을 제외한 짐승을 절반으로 자르자(9-10절) 하느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아브람은 짐승을 왜 절반으로 잘랐고, 하느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셨을까요?

이 행위의 본래 의미는 세월 속에 묻혔지만, 사실 이는 고대근동에서 일반적으로 행하던 계약의 방식입니다. 지배국과 피지배국은 자신들의 주종 관계를 설정할 때 짐승을 잘라 계약을 맺곤 하였습니

다. 토막 난 짐승처럼 되리라는 위협이었는데, 여기엔 피지배국의 반란을 막으려 한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계약이 종교적 차원으로 승화하여 하느님과 그 종들 사이에도 맺어지게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창세 15장에서는 짐승을 자르는 의식에 담긴 위협이 사라지고 행위만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계약의 당사자가 주군이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따르면, 하느님께서는 햇불과 연기의 모습으로 짐승 사이를 통과하시는데요, 햇불과 연기는 신현(神顯)에 자주 동반되던 현상입니다(탈출 19,18; 24,17 등).

창세 15,18의 “계약을 맺으시며”는 히브리어로 ‘계약을 자르다.’로 직역됩니다. 따라서 이 대목 역시 당시의 계약 방식을 잘 암시해줍니다. 옛 가나안의 도시국가 가운데 하나였던 알랄라크에서도 ‘양의 목을 잘라 계약을 맺었다.’라는 표현이 발견되고, 예레미야서에는 “나는 … 내 앞에서 송아지를 두 토막으로 가르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맺은 계약의 규정들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그 송아지처럼 만들어 버리겠다.”(34,18-20)라는 신탁이 등장합니다. 이때 송아지 토막 사이를 지나며 계약 준수를 맹세한 측은 이스라엘 백성이므로, 결국 그들은 토막 난 송아지처럼 되리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세월 속에 묻힌 옛 표현을 다시 이해하며 읽는 성경 말씀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계약을 이루시기 위해 어떤 충실함을 보이셨는지 새삼 깨닫게 줍니다. 🍵



교회는 신비다

「교회헌장」 제1장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헌장」 제1장의 제목은 “교회의 신비”입니다. 공의회는 교회를 설명하면서 구원 역사 안에 펼쳐진 ‘하느님의 신비’라는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봅니다. 신약 성경에서 ‘신비’란 하느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때가 차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혀진 구원의 실재를 가리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신비이고, 교회 역시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한에서 신비입니다. 하느님과 인간이 이루는 공동체가 가시적이고 역사적인 존재인 교회 안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신비로 보는 견해는, 이미 「교회헌장」의 형성 과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에넨스 추기경과 필립스가 제출한 초안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공의회 이전까지는 호교론적인 시각에서, 특히 종교개혁 시대의 반종교개혁 시각에서, 교회를 하느님에 의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합법화된 통치 체제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시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던 교회론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거부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안을 작성한 위원회는 「교회헌장」의 서문과 제1장의 제목을 ‘교회의 신비에 대하여’(De mysterio Ecclesiae)라고 붙이고, 그 해설에서 교회가 단순히 외적인 모습으로만 서술되지 않고 믿음의 대상으로 소개되어야 한다는 점이 제목에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위원회는 신학 용어로서의 ‘신비’란 단순히 베일에 가려 알 수 없는 어떤 추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이 시대에 말하는 ‘신비주의’라는 말의 뉘앙스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구현되는, 하지만 신적이고 초월적이며 구원을 주는 실재를 가리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

느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마르 4,11)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가 드러내는 신비, 곧 구원의 실재를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코시모 로셀리(1439-1507), 《산상설교와 나병 환자를 고치심》, 1481년, 시스티나 경당.
예수님은 군중에게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가르치며 구원의 표상으로 나병 환자를 고치신다.

신비라는 말은 사도 바오로의 서간에 자주 등장합니다. 바오로에게 신비란 “하느님의 신비롭고 또 감추어져 있던 지혜”(1코린 2,7)이고, 이 지혜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1코린 1,23) 안에서 실현됩니다. 따라서 바오로에게 하느님의 신비는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실재이고, 이 “하느님의 신비는 곧 그리스도”(콜로 2,2)입니다. 바오로의 신비는 그리스도의 신부(新婦)인 교회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바오로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신랑)와 교회(신부)의 결합을 “큰 신비”(에페 5,32)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오로에게 신비란 하느님의 감추어진 구원 경륜을 실현한 그리스도이며, 신비인 그리스도는 그와 결합한 공동체인 교회 안에 현존합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의 신비”를 「교회헌장」의 첫 자리에 두었습니다. 🍷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마태 5,8)

위암 수술을 받고 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70대 여성 환자를 위한 방문이었다. 요 며칠 방문 때마다 환자가 곤히 잠들어 계시니 한편 다행이라 여기다가 곧 신경질이 났다. ‘배려심이라곤 일절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고령의 환자를 조금도 쉴 틈 없이 괴롭혔으니 이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나.’

애초 나는 환자가 수술을 받기 전부터 무조건 쉬셔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수술 후 의식을 회복했을 때도 간단히 안수기도만 해드리고 방문을 일찍 마쳤었다. 하지만 환자의 병실 앞 상황은 달랐다. 늘 방문객들로 북적거렸다. 환자가 지금처럼 기력이 쇠하여 더는 일어나 반기지 못하게 될 때까지. 첫 방문에서 환자는 대여섯 명의 방문객들과 함께 ‘주님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들에게 한명 한명 눈을 맞추며 정성껏 배웅하는 환자의 모습은 오히려 내가 힘들었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을 만큼 온화하고 포근하게 느껴졌다.

“저는 살 만큼 살았으니 더 욕심내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어서 주님을 뵙고 싶어요. 정말로.” 내가 공감하는 마음에 고개를 끄덕이니 환자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역시 신부님은 제 말을 믿어주시네요. 우리 아들은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 소릴 하는 거라며 일단 수술부터 받고 보자네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수술을 받아보려고요. 아직 살아 있는 제가 아들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 주어야지요.”

수술 전부터 몰려오던 방문객들이 수술 후에 외려 더

많아지니 속이 상했다. 또 병실 앞에 ‘면회 사절’을 내걸지 않는 환자의 가족에게도 신경질이 났다. 힘든 기색이 역력한데 굳이 찾아오는 이들에게 한결같이 웃어 보이는 환자에게는 답답한 마음에 살짝 화가 날 지경이었다.

그렇게 씩씩거리던 나는 제풀에 지쳐 어느새 잠든 환자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주무시고 계신 얼굴에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그리고 보니 환자는 처음부터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었는데, 나만 혼자서 붉으락푸르락하고 있었던 거다. 아들 마음 편하게 해 주려고 힘든 수술도 마다하지 않은 분이니 피곤하다고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살 만큼 살아오면서 주님을 직접 뵙는 것만이 유일한 욕심으로 남은 분이니 이 세상에 조금 더 남아 있겠다고 ‘지금 여기에서’ 사람들과 나눌 온기를 아꼈 까닭이 없었다. 그 곁에서 평생을 살았을 아들 역시 이런 어머니의 삶에 대한 태도에 순순히 따르지 않을 재간이 없었을 게다.

어서 주님을 뵙고 싶다는 말에 고개나 끄덕일 줄이나 알았지, 사는 동안 환자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했는지 알아보지 못하던 나를 일깨우시려고, 나의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무시고 계신 환자 앞에 나를 세우셨다. 그래서 지복직관(至福直觀)을 바라며 세상에서 이미 하늘나라의 신비를 살아내는 환자의 깨끗한 마음과 외려 세상살이에 잔뜩 때가 끼어버린 내 마음을 맞대어 놓고 정말로 아파하길 바라셨다. ☹️



교구 소식

찬양이 있는 청년 사순 피정 (당일)

일시 3/28(금) 19:30~21:30

장소 청년센터 에파타 (의정부시 흥선로128번길 37)

대상 청소년, 청년 (만15세~40세) - 선착순 40명

주제 하느님의 은총에 손가락을 엮다

지도 이미숙 아가다 수녀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에드윈 김 바실리오 (피아니스트), 김선영 가브리엘 (테너)

접수 3/25(화)까지 [회비 무료]

문의 청소년사목국 카카오톡채널

신청 ▶



의정부교구청 사제숙소 시메온의집 '나동' 직원 모집

인원 여 〇명

분야 미화 및 주방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근무지 경기도 양주시 삼송동 171번지

근무시간 주 40시간

마감 채용시까지

우편접수 의정부시 신흥로 261 3층 관리국

문의 031-850-1426 의정부교구청 관리국

한마음 사제 피정 - 4월, 5월 (대침묵 피정)

4/25(금)~27(주일) 부활 신앙을 지니고 사는 의미 - 김영남 다미아노 신부

5/16(금)~18(주일) 교회의 신앙생활과 성모님의 영성 - 서한석 사도요한 신부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회비 1인 20만원 (1인 1실)

문의 031-850-1449 선교사목국

신청 ▶



의정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된 분은 3/21(금)까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송석주, 최현숙 베로니카

문의 031-850-1507 (주말, 공휴일 휴무)

전신자 성경 읽기 3/16(주일)~22(토) : 요한 6,41-59



3/29(토) 해설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시청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서명 캠페인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마태 2,13).

관련보도 ▶



죽음의 위협을 피해 부모의 품에 안겨 이집트 피난길에 오르신 예수님처럼 우리 곁에는 전쟁과 박해, 빈곤과 폭력을 피해 자기 나라를 떠난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해 온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자녀들은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똑같이 한국 문화와 한국말이 더 익숙한 우리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단식과 자선, 기도와 희생으로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사순시기에 미등록 이주민과 그 자녀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서명 ▶





미사 · 피정 ▶▶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일 기도회

일시: 3/21(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기도생활
 강사: 고광훈 하상바로로 신부
 (예수마음선교수녀회 지도신부)
 문의: 010-2127-0032

성주간 한마음 다락방 피정

초기 교회공동체 모습을 재현하며
 하느님 현존을 체험하는 1박2일 피정
 날짜: 4/14(월)~15(화)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회비: 10만원 (선착순 30명 마감)

한마음 어게인 Talk톡 토크콘서트

Lectio Divina를 통한 네버엔딩 스토리
 일시: 4/26(토) 10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하늘 광장
 회비: 4만원 (선착순 300명 마감)

엠마오 피정

호명산까지 걸어서 엠마오 여행 후
 산 정상에서 부활특강과 함께하는 미사
 일시: 4/21(월) 10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회비: 2만원 (선착순 150명 마감)

다시 혼인을 준비하는 비긴어게인 피정 - 3차

날짜: 4/5(토)~6(주일), 마리스타 피정의집 (합정동)
 문의: 02-3789-7702, ICPE카톡 플친

심용섭 아우구스티노 신부와 함께하는 사순특강

일시: 3/26(수) 19:30
 장소: 지금동 성당 대성전
 주제: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마르 15,34)
 문의: 031-567-3950 사무실

청주초정성령회관 1박2일 치유 피정

일시: 3/29(토) 14시 ~ 30(주일) 14시
 회비: 2만원 (청소년 무료)
 셔틀버스: 조치원역 (12:20 출발), 청주 (12:40 출발)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초정성령회관

전례음악과 영적치유

1차: 4/2(수) 15시 ~ 3(목) 13시
 2차: 4/23(수) 15시 ~ 24(목) 13시
 장소: 왜관수도원 문화영상센터
 회비: 12만원 (접수 후 입금)
 iM뱅크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문의: 010-6791-0071 (문자)

제주 면형의집 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추자도포함성지순례: 4/12(토)~15(화),
 4/27(주일)~30(수), 5/4(주일)~7(수)
 생태순례: 3/28(금)~30(주일), 4/2(수)~4(금)(추),
 4/7(월)~9(수), 5/10(토)~12(월), 5/20(화)~22(목)
 문의: 064-756-6009, 02-773-1463

도심 속 사계절 성향 피정

봄 / 생명의 움튼, 익존과 모성 돌봄:
 4/11(금) 17시 ~13(주일) 점심식사
 여름 / 자아의 성장, 마음의 상처와 회복:
 6/20(금) 17시 ~22(주일) 점심식사
 가을 / 나의 꽃 피움과 열매 맺음:
 10/24(금) 17시 ~26(주일) 점심식사
 겨울 / 내려놓음, 죽음, 부활: 12/19(금)~21(주일)
 문의: 02-726-0700 www.jjscen.or.kr
 명동 전진상영성센터

가정 회복 은혜의 낮 피정 - 고해성사, 상담

일시: 3/17(월) 13시~16:30 (범죄피해 가정기도)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1,2호선 시청역)
 문의: 010-7282-2422, 010-5245-0121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하느님, 바람, 나(힐링피정): 3/28(금)~30(주일)
 성경완독: 4/4(금)~12(토), 5/9(금)~17(토)
 문의: 010-3340-0201 형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날짜: 4/25(금)~28(월), 5/16(금)~19(월),
 6/20(금)~23(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 (수유동)
 회비: 36만원 (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 본당별 출장 피정 신청 가능

강우일주교와 함께하는 푸른꿈, 제주섬 피정

제주섬에서 섬, 순례(성지, 자연), 말씀 초대
 날짜: 4/23(수)~25(목), 5/21(수)~23(목),
 6/9(월)~11(수), 9/18(목)~20(토)
 장소: 성 이시돌 피정의 집 (한국통합사목센터)
 대상: 개인, 단체, 가족, 본당 (사목위원, 구반장)
 접수: 010-9670-9775, 010-7200-4567

혼인 성소 찾기 피정

지도: 최영민 베드로 신부 (예수회)
 문의: 다음카페 oh oh my half, 010-3173-2665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날짜: 3/29(토)~31(월), 4/1(화)~3(목),
 4/10(목)~12(토), 4/14(월)~16(수)
 추자도 포함: 4/5(토)~8(화),

4/29(화)~5/2(금), 5/17(토)~20(화)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성체현시와 성모송 천번 기도회

일시: 3/17(월) 12:30~17시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예수수도회 영성센터(서울) 프로그램

영신수련 2박3일 피정 (개인, 소그룹):
 4/11(금)~13(주일), 5/2(금)~4(주일)
 장소: 서울 오류동 (1,7호선 온수역 10분)
 문의: 010-6890-7223



교육 · 모임 ▶▶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추가 모집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 (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원서접수: 3/31(월)까지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성 소 모 임	사랑의 씨앗 수녀회	3/22(토) 14시~17시	카라의 돌 (4호선 한성대입구역)	010-5528-3217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상시 (상담 후 결정)	미리내 수도회 본원	010-5195-3217 성소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원하는 때 (zoom으로)	부산, 서울 수녀원 (zoom 만남)	010-9353-1773

시스피나 일산 합창단원 모집

그레고리오 성가와 모짜르트 대관식 미사곡 연주
성가대 유경험자, 전공자 환영, 나이제한 없음
문의: 010-9842-8818 이호중 교수

생활성가와 함께하는 한마음 청소년 음악 캠프

1차: 7/23(수)~25(금), 2차: 7/25(금)~27(주일)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인원: 100명 (선착순)
회비: 23만원 (식대 포함)
문의: 010-5399-7626 권성일 미카엘

가정선교회 영성학교

일시: 4/15(화), 4/29(화) 13시~16:30
장소: 가톨릭회관 1층 강당 (회비 있음)
강사: 양승국 스테파노 신부 (살레시오회)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송림동)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봉안: 60년 (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접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신앙과 인문학, 새로운 만남

주제: 신 앞에 선 인간 / 탈종교시대, 종교를 말하다 /
다산 정약옹이 꿈꾸었던 세상 / 하느님의 경제학
일시: 4/8~29, 매주(화) 19:30 [4강]
강사: 박승찬, 성해영, 정민, 김민직 교수
방식: 현장 강의 또는 녹화 강의 선택 / 청년할인
문의: 02-2135-9398, 한국CLC
<http://www.kclc.or.kr>

에파타합창단 단원 모집

연습: 매주(목) 19:30
장소: 의정부 예술공장 다목적실
(의정부시 동일로454번길 19)
문의: 010-5610-2327 박준희 스테파노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피나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의: 010-9842-881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직원 모집

모집: 영양조리반 1명 / 시설영선반 1명
근무: 월~주일 중 5일 근무, 08:30~17:30
업무: 전처리, 세정, 배식 / 수련원 내외 보수 및 청소
문의: 031-840-0018 (내선104)
※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hanmaum84.com 참고

의정부교구청 기사사도회 모집

내용: 교구 행사 시, 교통 봉사 및 질서 유지
대상: 개인택시 운전 교우
문의: 010-2762-9575 조성환 가브리엘 회장

**안내 · 기타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 42일**

9/21(주일) / 회비: 599만원 (+2,100유로)
가톨릭 트래블 - 루르드, 파티마 순례포함
문의: 070-4086-0207, catravel.co.kr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5/24(토)~6/3(화) 시칠리아, 몰타 (520만원)
5/22(목)~6/2(월) 성모발현지 피정순례 (485만원)
5/29(목)~6/9(월) 유럽 성모발현지 (KE, 555만원)
7/11(금)~22(화) 하년 이탈리아 (495만원)
문의: 02-2281-9070

늘푸른 자활의집 - 무료 주거형 치료공동체

저소득층 알코올, 도박, 컴퓨터 중독치료
대상: 성인 남성 / 그리스도수도회 운영
문의: 031-953-3492, evergreentc.modoo.at

성심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5/26(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7/8(화) 메주고리에 성모성지 (11일)
지도: 조승균 바오로 신부
9/18(목) 이태리 성체기적성지 (9일)
문의: 010-5909-5997 성심여행사

꼬메스심리상담소 - 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상담자: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5/14(수) 일본 나가사키 운젠 (4일, 150만원)
5/19(월)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13일)
5/20(화) 유럽 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 (12일)
8/9(토) 이탈리아, 알프스, 프랑스 (11일, 550만원)
9/17(수) 희망의 순례자들 하년 이탈리아 일주 (11일)
10/20(월) 시나이 산티아고 도보 순례 (12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3/28(금)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80만원)
4/8(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5만원)
5/6(화)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2일, 560만원)
6/3(화) 조지아, 아르메니아 (10일, 470만원)
7/4(금) 성모님 발현성지 4개국 (12일, 560만원)
9/4(목) 발틱 3국 (9일, 46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4/23(수) 알프스와 프랑스 성모성지
(12일, 545만원, 아시아나)
5/12(월) 유럽4개국 성모발현지 (12일, 495만원)
5/12(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45만원)
5/12(월) 산티아고 순례길과 포르투갈 (13일, 479만원)
5/21(수) 하년 특선 이탈리아 (11일, 445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 여행사

모임**의정부교구 147차 ME 주말**

날짜: 4/4(금)~6(주일)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파주)
대상: 3년 이상 혼인생활 중인 부부
문의: 010-9504-0419 ME주말분과 대표

전시**황석선 사진전 <찰나>**

일시: 3/29(토)~4/11(금), 10:30~17:30
장소: 갤러리 평화 (의정부시 시민로 53번길 36)
문의: 031-877-9153
※ 공휴일, 월요일 휴무

축성 기원 (Epiclesis Consecrationis)

‘거룩하시도다’(Sanctus)가 끝나면 감사기도가 이어집니다. 감사기도는 제1양식부터 제4양식까지 네 개가 있는데, 이에 더해 2008년에 나온 세 번째 표준판 「로마 미사 경본」에는 2개의 화해 감사기도와 4개의 기원미사 감사기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그리스도께서는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몸과 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사제는 성찬례 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분의 말씀과 동작을 반복하는데, 참으로 축성하는 힘을 발휘하려면 하느님의 능력과 성령의 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제는 성찬 제정 축성문을 외기 전에 성령을 청하는 기도를 바칩니다. 이를 [에피클레시스] (Epiclesis)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원상 ‘이름’ ‘별칭’ ‘부름’을 뜻하는데, 전례에서는 축성하기 위해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능력을 청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사제는 성부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빵과 포도주를 축성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기도문을 바칠 때는 두 손을 모아 예물 위에 펴 얹어 ‘안수’한 다음, ‘십자 표시’를 합니다. 안수는 성령을 전할 때, 십자 표시는 축성할 때 행하는 동작입니다. 단, 제1양식에서는 앞선 대목에서 십자 표시를 하기에, 이때는 안수만 합니다.

제1양식	“주 하느님, 이 예물을 너그러이 받아들이고 강복하시어, 참되고 완전하며 합당한 제물,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제2양식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 피가 되게 하소서.”
제3양식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제4양식	“주님, 간구하오니, 성령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 피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몸소 저희에게 영원한 계약으로 남겨 주신 이 큰 신비를 거행하게 하소서.”

제1양식에서는 성령이 직접 언급되지 않지만, 제2, 제3, 제4양식에서는 성령께서 빵과 포도주를 성체와 성혈로 변화시키는 축성의 주인공이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사제는 성령 청원 기도와 축성을 통해 성령이 임하시어 제대 위의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

홍유선 임마누엘	주 임 신 부	행 주 성 당  성모몽소승천	토 요 일	17:00 토요저녁주일미사
031-974-1728	사 무 실		주 일	09:00 주일 아침 미사 11:00 교 중 미 사
031-972-8537	팩 스		평 일	11:00 월, 화, 수, 목, 금
sd.uca.or.kr/hjsd1909	홈 페 이 지		성 시 간	15:00 매월 첫 금요일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소		성모신심미사	11:00 매월 첫 토요일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당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 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동체소식

■ 이번 주 본당 축일 명단

19일 (요셉): 유정진, 이창순, 양계영, 유정태, 류일영

전례

■ 사순 시기 십자가의 길

사순 기간동안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에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 4월 성모 신심 미사

4월 성모 신심 미사는 사순 기간 중인 관계로 봉헌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해외 선교 사제 후원을 위한 2차 현금

오늘은 해외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부님들의 후원을 위한 2차 현금이 있습니다.

본당공지

■ 사목협의회 월례회의

일 시: 3월 16일 오늘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 부활 판공 성사

부활 판공 성사는 사순 기간동안 보시고 성사표를 고백소 바구니에 넣으시거나 사무실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절기 토요일 저녁 미사 시간 변경

동절기 동안 토요일 저녁 5시에 봉헌하던 저녁 미사를 하절기 4월부터 9월까지 저녁 7시로 변경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변경 시작 일시: 4월 5일부터 토요일 저녁 7시

우리들의 정성 (3월 03일 - 3월 09일)

교 무 금	5건	500,000원
주 일 헌 금		1,063,000원

■ 감 사 헌 금

황은순 10,000원

■ 교중 미사 주송자, 예물 봉헌 담당

03월 16일	주송자	오정화(아녜스)
	권우석(라파엘), 정윤정(라파엘라)	
03월 23일	주송자	신은석(안제라)
	최성권(야고보), 김민숙(골롬바)	

- 복음 말씀 -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졌다.

행주성당의 성역화를 위하여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